

中學校 社會科 教師들의 環境意識에 관한 研究

南 尚 美

(금호여중)

I. 緒 論

1. 研究目的

학교 環境教育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環境教育의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教師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즉 環境教育은 합리적인 교육 과정,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등에 영향을 받지만 교과를 해설하고 각종 자료가 잘 활용되도록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教師들에게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하겠다.

또 현재 학교에서의 環境教育은 여러 과목에 걸쳐 多學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社會科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科 教師들의 環境教育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 나라 학교 環境教育의 實態를 파악해 보고 더 나아가서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環境教育의 구체적 방안의 고안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2.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해 教師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社會科 教師들은 社會科의 統合에 의해 지리전공, 역사전공, 일반사회전공 등이 섞여 있으므로 각 전공별로 분리하여 서울시내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교육현장에서 어느정도 環境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질문지는 서울시내 중학교에 100장을 배포하였는데 93개만이 회수되었다. 가능하면 전공과목별, 남녀별, 교직경력별로 모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서울시내 중학교에 젊은 教師의 수와 女教師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교직경력비, 남녀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II. 環境教育의 基本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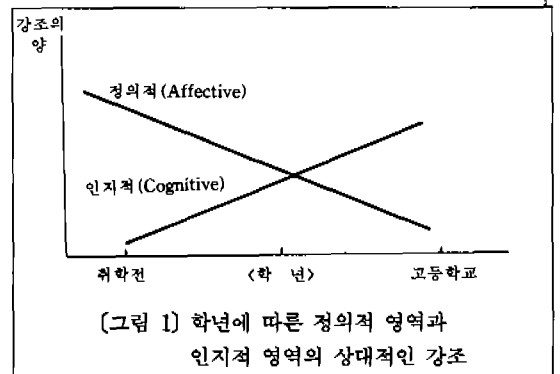
環境教育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교육의 분야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 즉 자연환경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룩한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하는 교육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황만익, 1990).

위와같은 고유한 특성을 지닌 環境教育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環境教育은 統合性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을 總體的 측면에서 파악하려면 汎科學的 지식·방법을 활용하도록 環境教育이 통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多學問的(multidisciplinary)인 관점에서 선정되고 구성된 통합된 내용이어야 한다. 현재는 사회·과학 과목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교과로 확산되어야 한다.

둘째, 環境教育은 繼續性의 원칙에 의해 모든 연령집단을 교육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Iozzi(1989)는 태도·가치 등은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하므로 취학전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情意的 영역에 치중하다 고등학교 이상부터 점차 認知的 영역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그림 1 참고).

셋째, 環境教育은 지식의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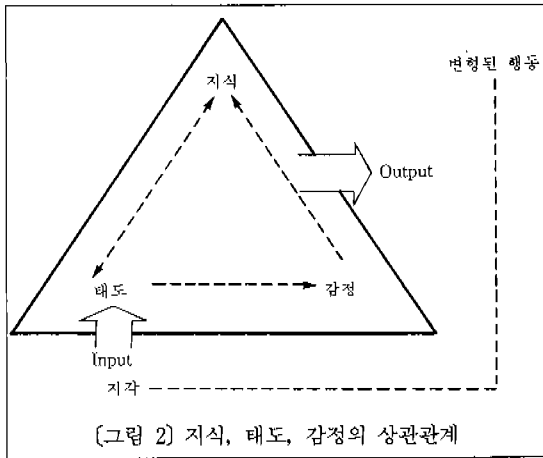


※ 출처 : Louis A. Iozzi(1989)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 No.4 p.8

值·態度의 함양을 주 목표로 하여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iss & Harberk (1989)는 지식은 태도·감정과 결합되어야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그림 2 참고).

環境教育은 환경문제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고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므로 특히 情意的 영역이 강조된다.

Kinsey(1979)는 환경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 출처 : “Eiss and Harbeck(1969)”를 인용한 Louis A. Iozzi(1989),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 No.3 p.4에서 재인용

환경에 대한 태도가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단순한 지식의 확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環境教育은 교실내에서만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방법보다는 직접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教授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Iozzi는 環境教育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現場學習, 發見學習, Simulation 활동, 價値分析活動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Iozzi, 1989).

넷째, 環境教育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따라 환경문제는 차이가 심하고 그 정도가 다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教授·學習資料開發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내용도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가 과밀하고 산업시설이 집적된 도시지역의 문제를 농촌 학생들에게 강조하면 너무 생소하여, 환경문제를

를 막연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일로만 느끼는 경향이 있다.

1987년에 환경정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가장 큰 환경문제를 소음 및 진동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토양및 농약오염을, 어촌에서는 쓰레기와 수질오염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 지역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환경정, 1987).

그러므로 環境教育을 실시할 때 고유한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교육을 시행함이 좋다. 학생들에게 자기 고장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예로 들면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보다 환경문제를 가까이 느끼고 행동주체로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環境教育의 地域化는 더욱 효율성있는 環境教育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III. 中學校 社會科 教師의 環境意識

1. 環境教育에서 教師역할의 중요성

環境教育이 학교에서 중요한 과업임이 선포된 이후 전 세계의 문교당국이나 학교위원회들은 바로 환경분야에서의 教師訓練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1972년에 열린 ‘유럽 환경보존 교육에 관한 실무회의(European Working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Education)’에서 教師教育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73년 ‘동남아시아 및 남서 태평양 지리 교육 워크숍(Reginal Workshop on the Teaching of Geography in South-East Asia and South-West Pacific)’의 보고서에서는 環境教育에서 地理教師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김귀곤,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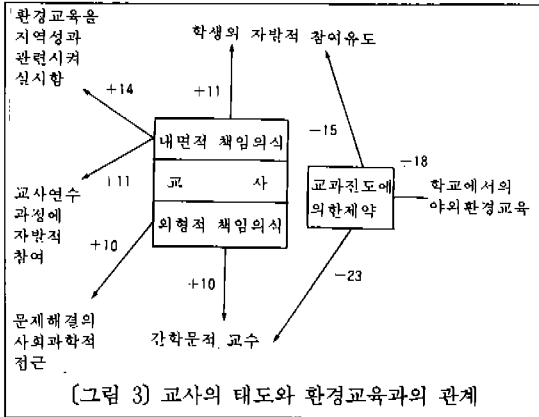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훌륭한 자료들이 있더라도 인간에게 자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도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環境教育은 합리적인 敎科課程, 다양한 프로그램, 시청각 교재 등에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 敎科를 해석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하며 시각적 보조교재가 활용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環境教育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학교 敎育課程 모든 분야에 걸쳐 보급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教師들의 훈련이다. 적어도 형식적인 교육안에서 주로 環境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環境教育은 教師들에게 달려있다. 環境教育에서 특히 教師의 資質이 중시되는 이유는 環境教育은 능숙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價値·態度의 형성, 행동의 변화유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生態學的 사고방식을 모든 교과목에 연관성있게 끌어들이야 하는 環境教育의 요구는 資質을 갖춘 教師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教師의 態度와 環境教育과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 출처 : Ditmar Bolscho, Guenter Eulefeld(1989), "Environmental Education in-Practice-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PN, Kiel, p.15

그림 3에 따르면 내면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진 教師는 환경주체를 地域化시키려고 노력하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며 教師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 한다. 외형적으로 책임의식이 강한 教師들은 多學問的 教授를 실시하기 위하여 他教科에도 관심을 갖는다. 또 教科진도와 같은 제도적인 制約은 야외에서의 環境教育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Bolscho and Eulefeld, 1989).

이상에서처럼 環境教育에서 教師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므로 모든 教師가 참여할 수 있는 再教育이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資質을 갖춘 教師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中學校 社會科 教師들의 環境意識

(1) 環境問題에 대한 認識度

① 環境權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본권으로서의 環境權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의 77.4%의 教師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바른 응답을 하였다(<表 1> 참조).

<表 1> 環境權 規定에 대한 認識度

구 분		문 항	1) 규정되어 있다	2)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모르겠다
담 당 학년별	1 학 년 (35)		71.4%	5.7%	22.9%
	2 학 년 (37)		73.0%	10.8%	16.2%
	3 학 년 (21)		95.2%	0.0%	4.8%
성 별	남 (20)		75.0%	0.0%	25.0%
	여 (73)		78.1%	8.2%	13.7%
전공별	지 리 (43)		69.8%	7.0%	23.3%
	역 사 (26)		73.1%	7.7%	19.2%
	일반사회 (22)		100.0%	0.0%	0.0%
	기 타 (2)		50.0%	50.0%	0.0%
경력별	5년미만 (58)		82.8%	5.2%	12.1%
	5년이상 (35)		73.1%	7.7%	19.2%
총 계			77.4% (72명)	6.5% (6명)	16.1% (15명)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環境權 규정에 대해 국민들의 51.2%만이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教師집단이 일반국민보다는 環境權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환경청, 1987).

그러나 응답자의 22.6%는 環境權의 규정을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변인별로 보면 環境權 규정을 가장 많이 알고있는 전공은 일반사회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環境教育에 관한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할 지리전공 教師들은 오히려 가장 적게(69.8%)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環境權의 규정여부는 법에 대한 상식으로 법에 더 많은 지식을 일반사회 教師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②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가장 많은 47.3%의 教師가 大氣汚染이라고 응답했다(<表 2> 참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1.6%가 소음공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견해차가 난다.

일반국민들은 자기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지협적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면 教師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가장 시급한 環境問題에 대한 견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공해	쓰레기공해
47.3% (44명)	40.9% (38명)	0.0% (0명)	2.3% (2명)	9.7% (9명)

위와같이 教師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이다.

환경청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51.1%의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을 공장의 굴뚝매연이라 지적했다(환경청, 1982).

그러나 教師들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54.8%로 가장 많이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일반국민들보다 教師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 참고).

③ 환경문제에 대한 전망

<表 3> 大氣汚染原에 대한 見解

공장의 굴뚝매연	가정의 취사난방매연	자동차배기가스	포장안된 도로의 먼지
32.3% (30명)	11.8% (11명)	54.8% (51명)	1.1% (1명)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教師인 95.7%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教師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4> 참고).

<表 4> 環境問題의 전망에 대한 見解

점점 증가할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점점 줄어갈 것이다	모르겠다
95.7% (89명)	2.2% (2명)	2.2% (2명)	0.9% (0명)

(2) 環境教育을 받은 經驗

① 대학에서 環境教育을 받은 經驗

대학재학시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 한번도 들어 본 경험이 없는 教師가 77.

4%, 1강좌이상 들어 보았다는 教師가 22.6%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사범대학에서 社會科 教師를 위한 環境教育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表 5> 참고).

<表 5> 大學在學時 環境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經驗

없 다	1 강 좌	2 강 좌	3 강 좌 이상
77.4% (72명)	19.4% (18명)	2.2% (2명)	1.1% (1명)

② 재직중 環境教育을 받은 經驗

재직중 環境教育을 받은 경험은 전공에 차이없이 모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가 1번에서 2번까지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일급 정교사 자격연수때 받았다고 하였다. 일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보통 경력이 5년 이상인 教師가 받는데 1989년부터 社會

科 教師의 연수 프로그램에 ‘環境教育’이라는 강좌가 추가되었다.

<表 5>에서 경력 5년 이상의 教師들이 環境教育에 관한 연수를 받은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위와 같은 일정 자격연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소수의 教師들은 학교 자체연수에서 環境教育을 받았다고 응

답하였다.

〈表 6〉 大學卒業後 環境教育을 받은 經驗

구 분		문 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 번	2 번	3 번 이상
전공별	지 리 (43)	93.0% (40명)	4.7% (2명)	2.3% (1명)	0.0% (0명)	
	역 사 (26)	92.3% (24명)	3.8% (1명)	3.8% (1명)	0.0% (0명)	
	일반사회 (22)	90.9% (20명)	9.1% (2명)	0.0% (0명)	0.0% (0명)	
	기 타 (2)	100.0% (2명)	0.0% (0명)	0.0% (0명)	0.0% (0명)	
경력별	5년미만 (58)	98.3% (57명)	0.0% (0명)	1.7% (1명)	0.0% (0명)	
	5년이상 (35)	92.4% (33명)	3.8% (1명)	3.8% (1명)	0.0% (0명)	

③ 環境教育 연수나 강연에 참여 여부

앞으로 環境教育 연수나 강연이 있을때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敎師들이 18.3%, 시간이 남으면 참여하겠다는 敎師들이 66.7%로 85%의 敎師들이 環境教育에 관한 연수가 생기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대 이상의 결과로서 敎師들이 環境教育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하겠다(〈表 7〉 참고).

〈表 7〉 環境教育을 받을 기회가 있을시 참여여부

적극 참여하겠다	시간이 남으면 참여하겠다	수당을 주면 참여하겠다	시키면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18.3% (17명)	66.7% (62명)	6.5% (6명)	5.4% (5명)	3.2% (3명)

(3) 중학교 社會科에서의 環境教育 실태

① 현재 環境教育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敎科

현재 環境教育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敎科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7%의 敎師들이 社會科라고 응답하였다. 두번째로 科學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道

德이며 國語는 한명도 지적하지 않았다. 기타로는 1명의 敎師가 가정이라 응답하였고, 1명은 전교과에 모두 들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아무 敎科에도 들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외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敎師도 1명 있었다(〈表 8〉 참고).

〈表 8〉 現在 環境教育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敎科

사 회	과 학	국 어	도 덕	기 타	모르겠다
57.0% (53명)	29.0% (27명)	0.0% (0명)	9.7% (9명)	3.2% (3명)	1% (1명)

② 環境教育을 가장 많이 담당해야 할 敎科

앞으로 環境教育을 가장 많이 담당해야 할 敎科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현재 社會科가 環境教育 내용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敎師보다 더 많은 敎師들이 앞으로 社會科가 環境教育을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

하고 있다. 즉 社會科 敎師들은 자신들이 環境教育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로는 전과목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1명의 敎師가 응답하였다(〈表 9〉 참고).

〈表 9〉 앞으로 環境教育을 가장 많이 擔當해야 할 敎科

사 회	과 학	국 어	도 덕	기 타
69.9% (65명)	18.3% (17명)	1.1% (1명)	7% (9명)	1.1% (1명)

③ 社會科에 실려있는 環境教育 내용분량

현재 社會 敎과서에 실려 있는 環境教育 내용의 분량

이 어떠한가에 질문에 적다고 생각하는 敎師가 59.1%, 너무 적다로 응답한 敎師는 36.6%로 대다수의 敎師들이

교과서 내용의 양적인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0> 참고).

<表 10> 社會科의 環境教育內容分量

너무 많다	많은 편이다	적 다	너무 적다
0.0% (0명)	4.3% (4명)	59.1% (55명)	36.6% (34명)

④ 교과서 環境單元의 내용수준

교과서 環境單元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매우 쉽다고 생각한 敎師가 26.8%, 쉽다고 생각한 敎師가 62.4%로

대부분의 敎師가 쉽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1> 참고).

<表 11> 敎科書 環境單元의 內容水準

매우쉽다	쉬운편이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26.8% (24명)	62.4% (58명)	9.7% (9명)	2.2% (2명)

쉽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環境教育이 실시되지 못하고, 敎師나 학생들은 시험과 별로 상관이 없으므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環境單元에 할애하는 시간

교과서의 環境單元을 가르칠 때 몇 시간이나 할애하는가에 질문에 한번도 강의한 경험이 없는 敎師가 37.6%,

1시간 할애하는 敎師가 44.1%, 2시간 이상 강의하는 敎師가 17.3%로 나타났다(<表 12> 참고).

대다수의 敎師가 學校環境教育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社會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環境單元을 강의한 경험이 없는 敎師가 37.6%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表 12> 環境單元에 할애하는 時間

강의한 경험없다	1 시간	2 시간	3 시간	4시간이상	기 타
37.6% (35명)	44.1% (41명)	15.1% (14명)	2.2% (2명)	0.0% (0명)	1.0% (1명)

環境教育이 單元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학년은 4次敎育課程까지는 1학년에만 해당된다. 1학년 교과서에서 小單元수준으로 ‘향토의 개발과 보전’이 5p분량, ‘環境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7p분량으로 도합 12p가 실려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85).

이 정도의 분량이면 보통 3시간 정도가 할애되는 것이 교과서의 진도로 적당한데, 응답한 결과를 보면 3시간 할애한 교사는 2명에 불과했다. 어떤 敎師는 環境單元을 10~15분에 걸쳐 끝낸다고 보기도 상관없이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敎師들이 學校에서의 環境教育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상 環境單元을 강의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단원이 價値, 態度에 관한 내용이므로 시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⑥ 環境問題를 교과서의 環境單元과 관계없이 다루어 본 경험

교과서와 관계없이 環境問題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가는 질문에 51.6%의 敎師들이 있다고 응답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속에서도 敎師들이 나름대로 環境教育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男敎師가 女敎師보다 좀더 높은 비율로 시간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학년별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敎師들이 環境教育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入試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表 13> 참고).

〈表 13〉 環境問題를 教科書와 관계없이 다루어 본 經驗

구 분		문 항	있 다	없 다
전공별	지 리		51.2% (22명)	48.8% (21명)
	역 사		57.7% (15명)	42.3% (11명)
	일반사회		45.5% (10명)	54.5% (12명)
	기 타		50.0% (1명)	50.0% (1명)
성 별	남		55.0% (11명)	45.0% (9명)
	여		50.7% (37명)	49.3% (36명)
담 당 학년별	1 학 년		57.1% (20명)	42.9% (15명)
	2 학 년		48.6% (18명)	51.4% (19명)
	3 학 년		47.6% (10명)	52.4% (11명)
경력별	5년미만		51.7% (30명)	48.3% (28명)
	5년이상		57.7% (15명)	42.3% (11명)
총 계			51.6% (48명)	48.4% (45명)

⑦ 環境教育을 주로 실시하는 시간

環境教育을 주로 실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66.7%의 教師들이 教科授業時間이라 응답하였고 7.5%의 教師가 자연보호활동 등의 現場學習時間이라 응답하

였다. 기타 조회, 종례시간을 이용한다는 教師도 있었다. 이를 볼 때 環境教育을 위해 특별히 할애되는 시간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表 14〉 참고).

〈表 14〉 環境教育을 주로 실시하는 時間

교과수업시간	특별활동시간	현장학습시간	기 타	무 응답
66.7% (62명)	2.2% (2명)	7.5% (7명)	5.4% (5명)	18.3% (17명)

⑧ 環境教育 기자재의 구비 현황

環境教育 기자재의 구비현황을 보면 부족하다고 응답한 教師가 35.4%, 전혀 없다고 응답한 教師가 54.9%로

90.3%의 教師가 環境教育 資料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15〉 참고).

〈表 15〉 環境教育 기자재의 구비현황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전혀없다
1.1% (1명)	8.6% (8명)	35.4% (33명)	54.9% (51명)

⑨ 環境教育을 위한 教育資料중 가장 효과적인 것

環境教育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가장 효과적인 資料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79.6%의 教師가 T.V. 영상자료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教師가 실감이 나는 資料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6〉 참고).

〈表 16〉 효과적인 環境教育 資料

인쇄자료	슬라이드나 화보	라디오와 녹음테이프	T.V. 영상자료
18.3% (17명)	1.1% (1명)	1.1% (1명)	79.6% (74명)

(4) 環境教育의 改善點

① 多學問的인 環境教育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環境教育이 실제로 多學問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54.8%의 教師들이 다른 敎科를 모르기 때문이라 응답하였고, 16.1%는 敎科別로 진도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 응답했다.

기타 2명의 教師들은 敎科間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教師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 敎科를 평적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表 17> 참고).

<表 17> 多學問的으로 環境教育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교과별로 진도가 안맞아서	다른 교과를 잘 몰라서	타교과와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환경교육의 내용이 어려워서	기 타
16.1% (15명)	54.8% (51명)	11.8% (11명)	15.1% (14명)	2% (2명)

② 學校 環境教育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方案

學校 環境教育의 강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57%의 教師들이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희망했고, 각 敎科에서의 보충강화를 24.7% 두번째로 많이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教師들이 우리나라 현실상 獨立敎科보다는 특별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교과에서의 보충강화를 더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表 18> 참고).

<表 18> 學校 環境教育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方案

독립교과설정	특별시간설정	특별프로그램개발	각기존교과의 보충강화
8.6% (8명)	9.7% (9명)	57.0% (53명)	24.7% (23명)

IV. 結 論

참 고 문 헌

教師들의 意識調查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물론 서울지역의 일부 社會科 教師들만의 응답결과가 본 논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環境教育의 문제점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教師들의 環境意識 調查 결과 대부분의 教師들이 學校環境教育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環境教育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情意的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環境教育이 우리나라 入試위주의 教育風土에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쉽고, 教師들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진도에 쫓기거나 꼭 짜여진 학교 일정으로 제대로 실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教師들이 環境教育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학재학중, 在職中에서의 環境教育의 수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시일내에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環境教育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셋째, 教師들의 意識調查 결과, 대부분의 教師들이 環境教育 관련 資料나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했다. 現場教育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資料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원활한 보급이 시급하다 하겠다.

권오정(1987),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교원교육」 3권, 1호(한국교원대학교) pp.67-78

권숙표(1986), 「너무 늦기전에」, 서울: 녹원출판사

김재광(1977), 「지리학과 환경과학」, 「공주사대 논문집」 제 15집, pp.193-204

김재광(1988), 「환경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공주사대 논문집」 제 15집 pp.303-314

김진현(1990), “인류의 자살을 막자: 모스크바 환경포럼 참가기”, 「동아일보」 1월 24일

김연옥(1988), 「환경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지역환경」 제6호(동국대 지역 환경 연구소) pp. 18-27

김귀곤(원)(역)(1980),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 서울: 배영사

노용희(1983), 「환경교육의 회고와 전망」, 「환경논총」 제 12권(서울대 환경대학원) pp.65-75

문교부(1980), 「한국교육 30년」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6), 「사회과·국사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61)」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7), 「중학교 제5차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오홍석(1988),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적절한 대응책」, 「지역환경」 제6호「동국대 지역환경 연구소」 pp.8-17

오홍석(1989),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역환

경」 제7호(동국대 지역환경 연구소) pp.1-19
 유희옥(1987), 「환경교육에 관한 일 고찰」, 「지역환경」 제4호(동국대 지역환경 연구소) pp.5-34
 이영희(1986), 「지리학습에 있어서의 환경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장원(1990), 「변영과 생태파괴의 모순 경고」, 「동아일보」 3월 27일
 최석진(1989),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개발」 제 11권, 제 6호, pp.22-34
 최석진(1990), 「독일의 환경교육」, 「교육개발」 제 12권, 제 1호 pp.111-121
 한국교육개발원(1985), 「중학교 사회 I」
 한국교육개발원(1989), 「환경교육을 위한 T.V.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1989), 「한·독 환경교육 학술회의」
 한국교육개발원(1989), 「중학교 환경교육 자료-인간과 환경: 교사용 지도서」
 한국환경교육학회(1990), 「환경교육」
 한국환경과학 연구협의회(1987),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청(1982),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
 환경청(1982), 「효과적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연구」
 환경청(1983),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환경청(1987),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환경청(1988), 「국민학교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사례

집」
 환경청(1989), 「중학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례집」
 Bolscho Dinter and Guenter Eulefeld(1989), 「Environmental Education in practice-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PN, Kiel
 Emery, J.S(1976), 「Trends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 Australia : Some Implications for Geography」
 Eulefeld, Guenter(1989), 「Environmental and School Intiatives」, National Report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y Guenter Eulefeld, IPN Kiel
 Iozzi, Louis A.(1989),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 No.3
 Iozzi, Louis A.(1989),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 No.4
 Taylor, J(1985), 「Guide on Simulation and Gaming for Environmental Education」, UNESCO
 UNESCO(1977),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Tabilisi, USSR : Final Report)」, UNESCO, Paris
 UNESCO(1987), 「International Congress 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ining(Moscow, USSR : Draft Final Report)」, UNESCO

Abstract

A Study on the Thought Environmental Education by Social Studies Teachers in Middle School

Sang-mee Nam
(Kumho Womans' Middle School)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en deteriorating increasingly in global scale and so environmental education has been more frequently emphasized all over the world. Also in Korea, the concer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is rising now.

As environmental education is the unique domain of education to be recently appeared, according as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serious socially, it has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that are as follows :

First,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done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method, because it is the domain of education whose subject is about the whole aspect of environment.

Second,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place stress on the affective domain more than the cognitive one, because its main purpose is the development done on the regional scale, becau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much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nd regional situation.

To know how well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being carried out, environmental education parts of the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in middle school and Social Studies teachers' thought on environmental problems and education were analyzed. Because Social Studies seems to take charg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large quantities.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th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

First, Even if, in related curricula(Science, Ethics, etc.) as well as Social studies,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intensified in the latest 5th curriculum revision, many of them were duplicated in each subject. The cause is that there has been no interdisciplinary system of all related subjects in real meaning. The roles distributed by the criteria of interdisciplinary system, which should be accomplished in preference to disconnected roles at each subject.

Second, Social Studies teacher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need of environmental education, but they took little tim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t classroom. It appears that entrance-exam oriented education in Korea has prevented teachers from carrying out environmental education to place emphasis on affective aspect.

Third, it we verified that materials needed for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very short in most school and most of Social Studies teachers has taken few lectures in their college days.

As mentioned above,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has not fulfilled the objects and the contents that it should aim at. Therefore, sever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on the following aspects :

First, after making the multidisciplinary or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on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first place, we should allot appropriate roles to each relating subjects.

Second, materials and programs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urgently designed and improved so that teachers can proceed it more vividly and effectively.

Third,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for present and preliminary teachers should be proceeded according to the ones fitted to each local characteristics.